

한·미 FTA 추진 동향과 농업에 미치는 영향

Current Situation of the KORUS-FTA and Its Impact on Korean Agriculture

권 오 복*
Kwon, Oh Bok

1. 머리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관세와 같은 무역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해서 무역 자유화를 이루려는 양국간 약속이다. FTA가 타결되면 농산물 시장을 비롯한 제반 시장이 더욱 개방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과 FTA를 체결하였다. 현재에는 아세안, 캐나다, 인도, 미국 등과 FTA 협상을 추진 중이어서 말 그대로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3일 한·미 FTA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래 다섯 차례 협상이 있었다. 농업분과에서는 지금까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민감성이 덜한 품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왔지만,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를 피해 5차 협상 이후로 미룬 상태이다.

한·미 FTA에서 우리나라의 농업분야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산업 중에 하나라는 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세계 최대의 농업 강국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우리나라 농업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한·미 FTA 협상의 동향을 검토하고, 한·미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한·미 FTA 농업분과 협상, 5차까지 큰 진전 없어

1차 협상은 지난 6월 4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1차 협상인 만큼 FTA 기초가 될 기본 협정문 초안의 작성 방향과 양측의 입장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지만, 합의된 초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협정문에 담길 내용 중에서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TRQ) 관리방식과 농산물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SG)가 주요 쟁점이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수입농산물의 사용 용도나 규격을 지정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수입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가 국영무역 등을 통해 TRQ 물량을 관리하는데 대해 개선을 강하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obkwon@krei.re.kr)

요구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FTA 이행에 따라 수입이 급증할 경우 관세를 일정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SG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지만 미국측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나라는 관세가 높은 농산물이 많기 때문에 고관세 품목이나 축산물, 과일, 채소 등과 같이 관세철폐 충격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는 안전장치로서 SG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2차 협상은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주로 양허안 골격(modality)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서 양허안 골격이란 관세인하 또는 철폐 방식을 말한다. 미국은 일반 상품은 물론 농산물까지도 즉시 철폐, 3년내 철폐, 5년내 철폐, 10년내 철폐, 기타 등 5가지 유형으로 양허안을 작성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우리나라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폐, 단기 철폐, 중기 철폐, 장기 철폐 및 예외적 취급 등 5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결국 미국이 우리나라가 농산물에 대해 제안한 장기 철폐 및 예외 취급에 난색을 보여 2차 협상도 별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3차 협상은 9월 6일부터 8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렸다. 3차 협상에서는 협상 전에 미리 교환한 양허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미국 측은 중요 민감 품목에 대한 논의는 다음 협상으로 미루고, 사료용 옥수수과 밀과 같이 민감도가 낮은 품목에 대한 개방요구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기를 희망했다. 미국 측이 우리 측에게 제시한 양허요구안에는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10년내 철폐하는 것을 담고 있어 우리 측이 수정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미국 측이 양보할 의사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협상이 종료되었다.

4차 협상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려, 3차 협상에서 다루지 않은 축산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 측의 개방요구안을 검토하고, 기본협정문 초안에 대한 협상이 있었다. 제주도 협상에서는 3차 협상에서 다루지 않은 축산물, 과일, 채소, 음료 및 주류 등 일부 가공품에 대해 주로 논의했는데 이들 품목에 대한 미국 측의 높은 관심도를 엿볼 수 있었다. 3차와 4차 협상을 통해 쌀과 같은 식량작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한 미국의 개방요구안을 검토한 셈이다. 논의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고, 민감도가 크지 않은 일부 품목은 상당 수준의 의견 접근을 이루었고, 입장이 다른 경우 중간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가 미정(undefined)으로 분류한 품목에 대해서는 별 다른 논의 없이 다음 협상으로 넘겼다. 미국 측은 현재 우리나라 양허안에서 미정으로 분류된 품목에 대해서 5차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미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려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다만 미국 측은 민감도가 극히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5차 협상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내년 1월 협상에서 별도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4차 협상에서 농업분과 성과 중에 하나는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SG를 기본협정문에 포함시키기로 한 점이다. 다만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요건 등에 대해서는 완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음 협상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측이 협상 개시부터 문제를 제기한 저울할당관세 물량관리 지침도 협정문 초안에 포함시키되,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협상에서 양측의 의견을 좀 더 절충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기존의 입장처럼 TRQ 물량에 대한 국영무역 및 수입부과금(mark-up) 금지, TRQ 물량의 선착순 배분, 용도제한 철폐 등을 기본 협정문안에 넣기를 원했지만, 우리

나라가 이견을 보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5차 협상은 12월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몬테나 주에서 열렸는데 우리 측은 수정양허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양측은 4차까지 합의된 최종 목록을 확인하고, 주요 농산물에 대한 민감도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5차 협상에서는 뚜렷한 합의 사항 없이 6차 협상을 2007년 1월 15일부터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의 협상이 탐색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면, 앞으로 남은 협상에서는 핵심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양측의 의견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양허안에서 미정으로 분류했던 품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양허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게 되었다.

다음에는 한·미 FTA 체결시 예상되는 농업 부문에 대한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농업부문별 영향을 검토한 후 개별 품목에 대한 영향을 논의할 것이다.

3. 한·미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FTA가 체결되면 상대국에게 부과하던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수입가격이 저렴해져, 수입농산물 소비는 증가하는 대신, 국산 농산물 소비가 감소하는 게 일반적이다. 국산 농산물의 경우 소비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생산도 줄어들게 되어 결국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때 수입농산물과 국산 농산물의 품질차이가 적을수록 FTA가 국내 농산물에 미치는 충격은 더 커진다. 소비자가 값싼 수입산 농산물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품질이 앞서는 국산농산물을 소비하면 FTA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농업생산 감소로 인한 농업소득은 비단 농업

자체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농업을 떠받쳐 주는 소위 말하는 농업후방산업, 예컨대 농자재 산업 등은 물론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업전방산업도 후퇴한다. 따라서 농업생산이 감축되면 영농활동과 직결되는 비료, 농약, 농기계, 비닐 등 농자재 수요가 직접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또한 FTA로 농업생산이 감소하면 농업인들의 관, 배수 수요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농산물 주요 품목군에 대한 한·미 FTA 영향을 분석하고, 주요 개별 품목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기로 한다. 전문적인 용어로 전자는 연산가능일방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ized Equilibrium: CGE)을 이용했고, 후자는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하였다.

한·미 FTA로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지면 전체 농업 생산액은 약 1조 1,500억원(Δ 1.9%)~2조 2,800억(Δ 3.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품목군별로는 축산물(3,380억원~9,031억원), 채소·과일(1,200억원~2,554억원), 기타작물(1,792억원~1,963억원), 낙농제품(142억원~1,110억원)으로서 축산물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표에서 관세 철폐 예외를 설정한 쌀 생산액이 감소하는 이유는 관세가 철폐된 다른 작목의 생산요소가 쌀 부문으로 이동하여 쌀 생산이 증가하여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 때문이다.

곡물 중에는 대두, 보리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02~2004년 평균 국내 대두 생산액은 약 3,200억 원 가량이다. 국내산 대두는 미국산에 비해 그 가격이 약 8배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487%에 달하는 관세를 철폐하면 생산기반 자체가 무너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냉동감자와 조제저장처리한 감자를 주로 수입했는데 다른 농산물과 달리 신선감자는 국내산이 미국산에

비해 경쟁력이 뒤지지 않아 FTA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가공용 감자의 수입 증가로 감자 생산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국내 감자 생산액은 2,015억 원이다.

보리의 경우도 한·미 FTA 영향을 심각하게 받을 품목 중의 하나이다. 미국산 보리는 중국, 캐나다 등 경쟁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지만 관세가 워낙 높아 관세 철폐 시 미국으로 수입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 FTA 체결되어 관세가 철폐되면 국내 길보리와 쌀보리 생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양념채소 중에는 고추, 마늘, 양파 순으로 한·미 FTA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다른 농산물에 비해 채소류는 한·미 간 가격차가 크지 않고,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먼 거리로 인해 FTA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수 있다. 미국이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칠리 고추를 수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칠리고추 가격 수준에서

국산과 대체가능한 품종을 생산하여 수출하면 국내 고추에 적지 않을 영향을 줄 수 있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미국산 고추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고추가격은 2.5%~4.9% 하락하고, 346~686억원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 자체에서 마늘의 수입량이 매년 늘고 있어, 미국의 마늘 수출여력은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마늘에 대해 관세철폐 시 국내시장에서 미국산 마늘이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미국산 마늘은 국산, 중국산 마늘과 품질 면에서 뚜렷이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품질차가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관세 철폐시 국내 마늘가격은 약 2.5%~3.5% 하락하고, 212~296억원의 생산이 감소할 전망이다.

미국산 양파는 육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저장성이 중국산에 비해 우수하고 수입될 경우 국내 산과의 대체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표 1. 한·미 FTA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미국	-2,114	-1.5	-1,793	-1.3	-1,070	-0.8
곡물(밀 제외)	-465	-18.6	-244	-9.8	-82	-3.3
채소·과일	-2,554	-2.9	-2,011	-2.3	-1,200	-1.4
유지작물	-882	-49.6	-498	-28.0	-144	-8.1
기타작물	-1,792	-8.4	-1,874	-8.8	-1,963	-9.2
축산물	-9,031	-14.5	-6,533	-10.5	-3,380	-5.4
낙농제품	-1,110	-3.6	-624	-2.0	-142	-0.5
가공식품	-3,837	-2.0	-3582	-1.9	-2,883	-1.5
음료 및 담배	-1,045	-1.3	-844	-1.0	-687	-0.8
계	-22,830	-3.7	-18,003	-3.2	-11,552	-1.9

시나리오 1: 쌀 제외, 곡물·유지작물 관세 50%, 채소·과일, 축산물, 유지작물 100% 철폐
 시나리오 2: 쌀 제외, 곡물·유지작물 관세 30%, 채소·과일, 축산물, 유지작물 80% 철폐
 시나리오 3: 쌀 제외, 곡물·유지작물 관세 10%, 채소·과일, 축산물, 유지작물 50% 철폐

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일정 물량의 신선양파를 수입하고 있다. 한·미 FTA로 미국산 양파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양파 가격은 4.0~5.5% 하락하고, 생산액은 153~213억원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 과일은 포도와 오렌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식물방역법상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금지된 상태이다. 다만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입허용 신청을 하여 사과, 배, 복숭아 등에 대해 위험도평가를 진행 중이다. FTA 협상과 식물검역과는 관계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험도 평가가 완료되어 수입이 허용되고, FTA를 통해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질 경우 과일

수입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산 사과는 배, 감귤, 오렌지 등과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세 철폐로 수입이 증가하면 이들 관련 과일에도 영향을 미친다. 역으로 오렌지 수입이 증가하면 국산 사과도 영향을 받는다. 한·미 FTA가 체결되고 검역문제가 해결되면 미국산 사과는 델리셔스 계통, 갈라, 후지 품종 등이 수입될 것이다. 이중 델리셔스 계통은 국내산 품종과 대체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거나 갈라, 후지 품종은 대체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미국산 후지가 대만 등지에 수출되어 동남아 시장에서 우리나라 사과 수출을 위협하고 있는 점만 보아도 미국산 후지와 우리나라

표 2. 한·미 FTA에 따른 주요 농산물 품목별 생산 감소액

(단위: 억원, %)

순위	품목	연간 생산액 ¹⁾	생산 감소액 ²⁾	감소비율
1	쌀	97,047	-	
2	쇠고기	20,998	1,960~5,300	9.3~25.2
3	대두	2,749	2,220~3,000	68.8~93.8
4	돼지고기	27,639	2,000~2,500	7.2~9.0
5	사과	4,979	980~1,530	19.7~30.7
6	닭고기	7,446	900~1,500	12.1~20.1
7	포도	4,797	800~1,400	16.7~29.2
8	감귤	3,972	670~920	16.9~23.2
9	낙농품	5,228	400~750	7.7~14.3
10	고추	15,001	340~680	2.3~4.5
11	배	3,554	220~640	6.2~18.1
12	인삼	5,023	214~423	4.3~8.4
13	마늘	5,550	212~290	3.8~5.2
14	감자	1,832	250	13.6
15	복숭아	1,721	110~330	6.4~19.2
16	양파	2,748	153~214	5.6~7.8
17	딸기	6,189	80~239	1.3~3.9
18	천연꿀	1,333	-	
19	토마토	2,671	115~228	4.3~8.5
20	연초	2,946	-	

1) 2001~2003년 평균

2) 구체적으로 제시된 생산 감소액이 없음.

사과의 대체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미국산 사과 관세 철폐시 국산 가격은 10~16%(평균 13%) 정도 하락하고, 생산액 감소는 연간 980~1,530억원(평균 1,26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과가 과일 중에서 한·미 FTA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일이다.

미국산 배는 주로 서양배로, 국산배에 비해 가격은 낮지만, 동양배와 품질이 달라 국산 배와 직접적으로 경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에서 신고 등 동양배가 재배되나, 수분함량이 적고 육질이 딱딱한 편이다. 따라서 국산 배와 소비의 대체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관세 철폐시 연간 220~640억원의 생산이 감소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포도를 연간 2천 톤 정도 수입하고 있다. 수입 물량은 5년 전에 비해서는 늘어났지만 국내 포도 소비량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포도 품종은 청포도 계열(Tomson Seedless)이다. 당도는 18°Bx 수준으로 국내산 포도의 당도에 비해 높지만, 저장성이 떨어지며, 당도에 비해 산도가 매우 낮고 껍질 분리가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국내 소비자 선호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 FTA로 미국산 포도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산 포도 가격은 5~8%(평균 6%)하락하고, 생산액 연간 860~1,400억원(평균 1,135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1억 달러가 넘는 오렌지를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오렌지 수입 물량 중 95%가 미국산이며, 나머지는 남아공산, 호주산 등으로 구성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렌지 수입은 국산 감귤과 사과 등에 영향을 미친다. 오렌지 관세 철폐로 인해 감귤 가격은 8~12%(평균 10%) 하락하고, 감귤 생산액은

19% 내외에 해당하는 670~920억원(평균 79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숭아는 저장기간이 짧아 미국산 복숭아가 장거리 운송에 의한 품질 하락 등으로 국내산을 대체할 가능성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산 복숭아와 미국산 복숭아의 소비 대체 가능성은 다른 과일에 비해 낮을 것이다. 한·미 FTA로 미국산 복숭아에 대한 관세 철폐시 국산 복숭아 가격은 3~9%(평균 6%) 하락하고, 생산액은 110~330억원(평균 22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과 국내 쇠고기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미국에서 안심 등 특정 고급부위의 도매가격은 국내산과 큰 차이가 없으나, 등심의 경우는 2006년 8월 도매가격이 kg당 5,037원으로 국내 등심지육 도매가격 36,587원의 13%에 불과하다. 여기서 냉장육 가격과 냉동육 가격의 직접비교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나 한·미간 쇠고기 도매가격 차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우고기는 미국산 쇠고기를 비롯한 수입산 쇠고기와 비교할 때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떨어지지만 맛으로 나타나는 품질 경쟁력 면에서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쇠고기의 지방산 중 단일불포화지방산의 일종인 올레인산은 쇠고기의 맛을 좌우하는 요인으로서 그 함량이 많으면 기호성이 높고 그 함량이 낮으면 기호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한우고기에는 이러한 올레인산의 함량이 미국산 쇠고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에서 농산물 중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쇠고기에 대한 영향은 우리나라 소비자가 한우와 미국산 쇠고기를 어느 정도나 차별화하여 소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 상황에서 한우고기는 품질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수입 쇠고기와 차별화 되어 가고 있으나 2등급 이하의

국내산 쇠고기는 미국산 쇠고기와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미 FTA 체결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산 쇠고기 가격은 4.6~12.7%(평균 8.7%) 하락하고, 한우 생산액은 6.8~18.2%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액으로는 1,960억원에서 5,300억원 정도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2006년 7월을 기준으로 미국산 냉동 삼겹살의 도매가격은 kg당 2,061원이며 이는 국내산 냉동육의 도매가격 13,077원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등심가격은 국내산의 약 58% 수준이다. 이처럼 높은 가격차의 원인은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료가격과 자돈구입비용이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특히 배합사료 원료인 옥수수와 대두박의 가격이 우리나라에 비해 각각 47.1%, 38.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는 배합사료에 의존하는 반면 미국은 대부분의 농장에서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사료를 직접 배합하는 것도 사료비의 가격차를 크게 하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내 돼지고기 수입시장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점유율은 15%(2003~05년 평균)이며, 주요 수입부위는 목심과 갈비이지만, 냉장육 수입비중이 증가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어 미국산 돼지고기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 미국의 냉장 삼겹살 수입량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국내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철폐로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은 4.4~5.3%(평균 4.8%) 하락하고, 양돈 생산액은 5.7~6.8%(평균 6.3%) 감소할 전망이다. 금액으로는 2,000억~2,500억원이다.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닭다리의 경우 미국산 냉동육 가격이 국내산 냉장육 가격의

40.3%, 닭날개의 경우 34.5% 수준이다. 미국의 닭 출하체중은 2.2kg~2.3kg대이며 우리나라(1.5kg)의 1.5배 수준이다. 병아리대, 노력비 등 생산비도 우리나라의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내수 선호도가 높은 가슴살은 대부분 미국 내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가인 닭다리 등이 수출된다. 따라서 미국산 닭다리 등의 국내 도매가격은 국내산 닭고기 가격의 절반 이하의 수준이다. 닭고기 수입 시장에서 미국산 점유율은 68% (AI발생 이전 2000~2002년 평균) 수준으로 매우 높아 한·미 FTA체결로 미국산 닭고기 관세가 철폐되면 국내 육계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산 닭고기 관세철폐로 국내산 닭고기 가격은 7.3~12.5%(평균 9.9%) 하락하고, 생산은 2.3~4.0%(평균 3.2%) 감소하며, 육계 생산액은 9.5~16.0%(평균 12.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우유 생산자 가격은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며, 미국에 비해서는 2배 정도 높다. 다만 음용유는 부패성이 높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현재 수입되지 않고 있으며, 음용유 이외의 유제품이 주로 수입되고 있다. 미국의 유제품의 가격은 국내산 유제품 가격의 약 50% 내외로 이러한 가격차의 원인은 제조원가의 60%를 차지하는 원유가격의 차이(2배~3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TA가 체결되어 유제품 수입이 자유화 될 경우에도 발효유는 음용유처럼 부패 변질 가능성이 높아 수입되기 곤란하다. 결국 국산 분유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체결로 미국산 분유 관세가 철폐될 경우 낙농가의 잉여원유 생산량에 적용되는 국제기준가격(혼합분유가격)은 26.5% 하락하며, 생산량이 2.5%~7.5% 감소함에 따라 잉여원유 생산량은 34만 톤에서 17만

톤~28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국제기준가격 하락과 잉여원유생산량 감소에 따라 원유생산액은 457~747억원(602억 원) 줄어 들 것으로 추정된다.

4. 맺는말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거대경제권 국가를 중심으로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 중이다. 이것은 경쟁력이 낮은 우리나라 농업에게는 커다란 위협일 수 있다.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FTA 추진과정에서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FTA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특성에 따라 개방 예외, 부분감축, 장기간의 이행 기간 확보와 더불어 최소한의 개방이 중요하며, 수입 급증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수입제한 조치(Special safeguard: SG)를 강구해야 한다. 농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품목은 FTA를 추진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일정 수준의 자급 기반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큰 흐름으로 우리에게 빠르게 다가오는 개방화·국제화에 대비, 국내 농업의 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통체계

확충을 통해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까지 유지,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신시장, 신수요를 창출하여 농업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는 데 높은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규모 확대와 더불어 새로운 성장 동력 작물 등과 같은 경쟁력이 높은 품목을 발굴, 보급하는 방향으로 농업구조를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미 FTA 추진 등으로 농업이 축소되면 농업 전, 후방 산업의 축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농기계 등 농자재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농업인의 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농자재를 개발, 보급하는 한편, FTA를 기회로 활용하여,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 추진 등에 따라 농업인들이 갖는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바탕위에서 농업을 기간산업으로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제도적 정책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FTA 추진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원칙에 따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물론 농업부문에서도 경쟁력제고를 위한 끊임없는 자구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부 축산업계에서 정착되고 있는 자조금 제도는 좋은 본보기 중에 하나일 것이다.

참고문헌

1. 강혜정, 2006, 「농가유형별 FTA 영향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국민경제자문회의, 2005,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3. 권오복 외, 2005,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권오복, 2006, “한·미 FTA의 의의와 기대효과”, 외교통상부주최 한·미 FTA 공청회 자료, pp.71-94.
5. 김경필, 2004, “중국 온주감귤 경쟁력 분석과 대응방향.” 「식품유통연구」, 제 21권 1호, pp.85-101.
6. 김경필 외, “과일 상품가치의 헤도닉가격 분석”, 「농업경제연구」 43(3), 한국농업경제학회.
7. 김경필 외, 2005, 「과실 수입 과급영향 분석과 대응방안」, C2006-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 김경필 외, “도시가구의 과실 구매행태 변화 분석”, 「농촌경제」 27(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 김경필, 2004, 「개방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발전방안」 C2004-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 김병률 외, 2001, 「중국의 WTO 가입과 시장개방에 따른 채소·과수·화훼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 김연중 외, 2006, “양념채소류 수입 동향과 전망”, 「농업전망 200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 김정호, 2001,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분석」, p.4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 김정호 외, 2006, 「농업구조조정과 시장개방의 관계분석」, C200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 김정호, “농업구조의 쟁점과 진로”, 「한국농업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15. 김정호 외, 「1990·1995·2000 농업총조사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16. 농수산물유통공사, 2006, 「한·미 FTA 대비 주요 농산물 수출입경쟁력 분석」.
17.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2006, 「농업·농촌 기본법 개정 방향(안)」 토론회 자료집(2006. 6. 16).
18. 농촌진흥청, 2005, 「DDA·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방안」.
19. 어명근 외, 2006, 「농업구조조정과 FTA 추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 우병준, 2006,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조사료 생산방안”, 2006년도 한국조지학회 심포지엄 발표논문.
21. 이영기, ‘한국 농업의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2.
22. 이계임 외, 1998, ‘과실류 소비 행태에 관한 연구’, R39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3. 이창수 외, 2005, 「한·중·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24. 이창수 외, 2005,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5-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5.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2004년산 노지감귤 공동브랜드 분석집」, 2005. 4.
26. 최세균 외, 2006, 「농업부문 FTA 추진전략 연구 및 D/B 구축(종합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7. 최지현, 2004, 「과수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불제도 연구」 C2004-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8.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2004 과실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 평가회 및 셉플러스 초출하식」 내부자료, 2004. 10.
29.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2006년도 품목별 기술 개발·보급 및 포탈사이트 운영사업 세부계획」 내부자료, 2006.
30. 황의식, 2006, “신시장과 신수요 창출의 길,” GS&J 창립1주년 기념행사 발표 논문, Rogowsky, Robert A., 2004. “U.S.-Korea FTA: The Economic Impact of Free Trad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presented to AEI-KITA Conference, Tuesday, October 27, 2004.
31. Choi Inbom and Jeffrey J. Schott, 2004. “Korea-US Free Trade Revisited,” Jeffrey J. Schott, ed., Free Trade Agreemen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32. Schott, Jeffrey J., et al., 2006. “Negotiating the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Policy Briefs in International Economics, No. PB06-4, pp.1-34.